

2022년 부호장공파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부호장공파종회(副戶長公派宗會: 회장 권주연)는 1월 8일 오전 10시 30분 안동시 어가골길(태화동) 일원정(一源亭)에서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감사, 사무국장 등 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개최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다.

권기윤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오는 1월 22일 제105회 정기총회 개최를 앞두고 코로나로 종회를 개최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할 것인지 여부, 명의 신탁된 문중 토지 관리 건, 파종회 족보발간 여부, 일원정 안에 있는 지장목(참나무) 벌목 건 등을 토의하기 위하여 모였다.

2시간에 걸친 열띤 토의 끝에 정기총회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취소하는 대신 종원(宗員)들에게 일일이 정기총회 회의서류와 파종회장 명의의 인사말을 통봉하여 발송하는 등 '서면총회'를 하기로 결의했다. 만약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오는 5월에 개최할 경로잔치 때 정기총회를 겸해서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명의 신탁된 문중 토지는 앞으로 보존하던지 정리하던지 검토한 후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파(派) 족보는 20년 만에 한 번씩, 대동보는 30년 만에 한 번씩 발간되는데 파 족보는 발간한지 20년



이 지났음으로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내 6개 소문중의 의견을 들은 후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일원정안에 있는 많은 참나무가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져 이웃 민가에 지장을 주고 있지만 민간부담으로 참나무를 벌채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승낙해 주기로 하였다.

이 자리에서 2021년도 결산과 2022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회의를 마치면 참석자 전원이 식당에 가서 점심식사를 함께 하였으나 이날은 코로나 때문에 주최측이 점심값을 개인별 지급했다.

(보도부장 권영간)

대통령 후보들의 직업관



권대봉 중부대학교 총장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두달 후로 다가왔다.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에 명문화된 대통령 취임 선서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기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염숙히 선서합니다”이다. 소명으로서 직업관이 있어야 실천이 가능한 대통령의 직분이다.

필자가 중동 건설현장에서 일할 적에 대학 은사님께 “선생님은 왜 사십니까”라는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 “나는 학생들을 위해 산다”라

는 답장이 왔다. 은사님께서 ‘소명으로서 직업관’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워크숍에서 어떤 교수와 학생들이 나눈 대화를 들어보자. 학생이 교수에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했다. 교수는 “인생이란 나와 남을 함께 빛낼 수 있는 시간여행입니다”라고 답변했다. 나만 빛내려고 하면 너무 이기적이 되고, 남만 빛내려고 하면 너무 이타적이 된다. 내 인생만 빛내려다가 낭패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스승과 제자, 친구, 선배와 후배, 상사와 부하, 동료, 부부, 부모 자식, 형제자매, 이웃, 정치인과 유권자 등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이치이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학생의 두번째 질문이 이어졌다. 교수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의 존재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한다.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국민은 공무원으로부터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자식은 부모로부터, 그리고 학교 교직원은 학생으로부터, 학생은 교직원으로부터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인간은 존재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인간은 그 공간에서 시간여행을 하는 존재이다. 인간이 시간여행을 하는 공간에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현실세계만 있던 인간의 활동 공간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가상세계로 확장되었다가, 이제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융복합된 메타버스로 확장되어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서 세계관에 변화를 주고 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입니다”라는 학생의 세번째 질문이 이어졌다. “나의 이익, 조직의 이익, 사회의 이익, 그리고 나의 이익과 합치되는 일을 하면 성공적인 삶이 되고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습니다”라고 교수가 답변하였다.

즉, 소명으로서 직업관을 실천하는 삶이 성공적인 삶이라는 의미이다. 소명으로서 직업관 실천이 특히 요구되는 사람들은 교육자들과 정치인들이다. 정치인들은 자기의 이익과 소속 정당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합치되는 일을 한다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두달 동안이라도 대통령 후보들이 소명으로서 직업관을 실천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출처 파이낸셜 뉴스 2022년 1월7일 fn 광장

<특별기고> 권인호(철학박사, 대진대 교수, 한국동양철학회 회장)

전통계승과 온고지신 및 민본적 정치철학의 실사구시적 실학정신 (19)



고려는 서희를 필두로 거란의 요나라와 강화답판을 이끌어냈으며 그 당시 요나라가 제시했던 국교 수립과 각 국가 간의 무역을 협정하는 등 요나라와 등거리 외교를 맺었다. 고려는 그 당시 강대국인 요나라와 불합리한 외교를 맺은 것이 아닌 서로 간의 이익과 실리(實利)를 쟁기 외교를 통해, 고려의 피해를 줄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외교의 기본인 실리까지 쟁겼다고 본다. 이는 당시 국제 정세를 살핀 서희의 뛰어난 통찰력과 외교술이 만든 송나라(북송)와 거란의 요나라 사이 이른바 ‘등거리 외교’의 완전한 폐기였다고 평가된다.

그 뒤 강조(康兆, ?~1010)가 당시 나약한 성격과 음모가 판치던 매관매직과 궁중에서의 방탕이 횡행했던 목종(穆宗) 12년(1009)에 원래 중이었고 외척 출신이던 김치양(金致陽, ?~1009)과 천추태후(千秋太后, 경종景宗의 현애왕후)로 추정되는 목종의 모후 황보씨(黃보씨)가 사통한 아들을 왕위에 올리고자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자, 서북면도순검사였던 강조가 이를 평정하고 목종을 퇴위케 하고 시해하였다. 태조 왕건의 손자로 유일하게 남은 대량원군(大良院君, 992~1031, 뒤에 고려 제8대왕으로 성군인 현종)을 맞아 왕위에 앉혔다. 이를 핑계로 하여 거란의 요나라 성종(聖宗, 재위 982~1031)이 직접 고려를 침입해(1010년 11월) 왔던 것이다. 강조는 직접 행영도 통사가 되어 분투하였으나 패하여 포로가 되어 죽었다. 그러나 현종은 남쪽 나주로 봉진하면서도 고려의 군사들은 끈질기게 거란의 요나라 군사를 폐퇴케 하였다.

현종(顯宗, 재위 1009~1031) 9년(1018년 12월)에 거란의 요나라가 현종의 친조(親朝)를 요구해 왔으나 끝내 거절하자, 고려 침략으로 속국으로 만들려는 끈질긴 침략을 버리지 못한 요나라 성종은 장수 소배 압(蕭排押, ?~? 요나라 경종의 사위, 소손녕의 형)으로 하여금 10만 군사로 고려를 침입했다. 고려는 강감찬(姜邯鄲, 948~1031)을 상원수로 강민첨(姜民瞻, ?~1021)을 부원수로 하여 20만 대군으로 거란 군사들을 곳곳에서 격파하며 잘 막아냈다. 의주 흥화진과 자주 신온현 등과 특히 귀주대첩(1019.03)에서 거란 군 10만명 가운데 수 천명 만이 겨우 살아서 폐퇴하는 궤멸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 이후로 거란의 요나라는 고려를 넘보지 못하였다.

또한 선조의 제15대 국왕인 광해군(光海君, 이훈李暉, 1575~1641, 재위 1608~1623) 또한 등거리 외교를 통해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리와 그 근본인 백성의 안위(安危)를 지켜낸 임금이었다. 당시 광해군은 선조와 후궁인 공빈(恭嬪, 1553~1577, 김해 김씨,

부친 김희철, 모친 안동 권씨)의 둘째 아들(첫째 임해군)로 태어났고 공빈은 산후병으로 2년 뒤에 죽었다. 그렇지만 선조와의 후사가 전혀 없었던 의인왕후(懿仁王后, 1555~1600, 부친 박응순, 모친 전주 이씨, 1569년에 왕비책봉) 반남 박씨의 후덕하고 어진 보살핌으로, 광해군은 어려서 영민(英敏)하여 임진왜란(1592.4)이 일어나자 세자로 책봉되었다.

광해군은 세자의 신분으로 분조(分朝)를 통솔하며 전장을 누비며 명나라 원군과 일본 왜적의 실상을 파악하고 백성들의 참상을 직접 목격하였다. 그는 냉엄한 국제 정세를 살피는 통찰력이 뛰어났으며, 국가의 근본인 백성들과 국가의 안위를 숭명배청(崇明排清)의 사대주의에 앞서 걱정하는 민본주의 정신이 투철한 왕이었다고 본다.

명나라(1368~1644) 277년간의 16황제 가운데 14

대 황제였고, 태조 주원장(朱元璋, 1328~1398, 재위 1368~1398)의 41년 재위 기간보다 가장 오랜 49년의 무능과 태만, 폭력의 만력제 신종(神宗, 주의군朱翊鈞, 재위 1572~1620)은 그의 망국황제의 자질과 함께 토지제도의 문란으로 지방 번왕(藩王)들은 대지주 대토지 겸병사유(兼併私有)화를 만연하였고,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으면서도 조세는 가렴주구로 수탈하여 파탄지경으로 내몰았다. 뿐만 아니라 환관 위충현(魏忠賢, ?~1627)의 국정 농단이 극에 달했고, 조선의 임진왜란으로 원병과 후원 등으로 인해 망국 쇠퇴의 길을 걸었다고 본다. 신종이 봉어(崩御; 사망) 한지 24년 후 3대를 거치고 한 명나라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후금(淸) 나라 사이에서 광해군은 지금껏 사대해운 명나라가 아닌 후금(淸나라)과의 사대주의보다는 대등한 외교를 선택했다.

광해군은 겉으로는 명나라에게 원군을 보내며 명나라를 향한 조선의 사대적인 모습을 표방했지만 속으로는 후금(後金; 뒤에 청나라)에게 서신을 보내 명나라의 강체적인 출정 요구로 인해 원군을 보냈다고 알리는 등 자국의 실리와 이익을 쟁기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등거리 외교술을 펼쳤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도 고려와 조선과 마찬가지로 세계 1,2위(G1:G2)의 강대국들이 미국과 중국의 사이의 신냉전 사태에 등거리 외교를 펼치고 있다.

지금 한국은 미국의 우방국으로 미국과의 교류를 맺고 있지만 중국 또한 한국의 중요한 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 쪽으로 편향된 성향을 내비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양 국가 간의 경쟁 의식을 통해 자국의 입장과 실리를 쟁기고 있다. 현재 전 세계의 이목을 끄는 것은 올해 초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외교 사절단이다. 미국을 포함한 미국의 우방국들은 이미 중국에 외교 사절단을 보내지 않기로 입장장을 표방했다. 이에 대해 우리 한국은 당당하고 자주적인 모습으로 국제외교 관계를 통하여 명분과 실리를 도모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謹賀新年



협의회장 권태호(충청북도 회장)

고 문 권길상(협의회 초대, 2대회장, 부산), 권동술(협의회 3대 회장, 합천), 권영호(협의회 4대 회장, 부산)
부 회 장 권숙동(안동회장), 권영하(영동포회장), 권승구(마포회장), 권성용(부산회장), 권정걸(안양회장), 권용기(대전회장), 권오협(제천회장), 권종희(상주회장), 권충화(광주회장), 권이수(전주·완주회장), 권영창(영주회장), 권영복(산청회장)

감 사 권태형(마·창·진 회장), 권오협(충주회장)
간 사 권창구(원주회장)

권혁윤 강릉회장	권태형 마·창·진회장	권주석 서천회장	권경호 영양회장	권병기 의령회장	권계수 창녕회장
권오홍 경산회장	권승구 마포회장	권병후 수원회장	권영창 영주회장	권용규 의성회장	권병섭 청송회장
권영길 경주회장	권태갑 문경회장	권준표 순천회장	권경환 영천회장	권이수 전주·완주회장	권기택 청주회장
권충화 광주회장	권영근 밀양회장	권오정 시흥회장	권오영 예산회장	권재원 정읍회장	권태호 충북도회장
권영화 구미회장	권양호 봉화회장	권숙동 안동회장	권창용 예천회장	권인창 제주회장	권오협 충주회장
권경관 금산회장	권성용 부산회장	권정걸 안양회장	권영국 옥천회장	권오협 제천회장	권혁수 칠곡회장
권대영 금천구회장	권혁진 부천회장	권용만 양평회장	권희성 온양·아산회장	권천문 서울중구회장	권순종 통영회장
권순옥 단양회장	권오식 분당회장	권영현 여주회장	권영순 용인회장	권영목 서울중랑구회장	권봉정 포항회장
권공식 담양회장	권영복 산청회장	권영로 연천회장	권의호 울산회장	권성업 증평회장	권중관 하동회장
권오섭 대구회장	권종희 상주회장	권성덕 영덕회장	권창구 원주회장	권재덕 진주회장	권사현 합천회장
권용기 대전회장	권상용 서남권회장	권영하 영등포회장	권병택 음성회장	권오섭 진천회장	권병규 횡성회장

100만 족친 여러분!
어려웠던 지난 한 해
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
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뜻하시는 일
만사형통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
시길 간절히 기원합니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
시오.

*순서는 지역명 가나다 순입니다.

안동權씨 전국지역종친회장협의회 회장 권태호